

유가 급등·강달러 압박에 환율 출렁... 외환시장 불안 고조

브렌트유·WTI 2022년 이후 최고치 원·달러 환율 1460원대 날뛰기 지속 정부·한은 “과도한 변동성 댄 조치” 트럼프 출구전략 시사에도 불안 여전

올해 들어 안정세를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연일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촉발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유가가 상승하고 달러의 강세가 뚜렷해지면서다. 정부와 외환당국이 개입 의사를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가·달러 강세...정부·당국 개입

10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69.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지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일의 주간 증가(오후 3시 30분 증가)인 1495.5원과 비교해 26.2원 급락했지만, 연중 최저치인 1월 22일의 1422.5원과 비교해선 가격이 40원 이상 높게 형성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사태’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관측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로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발표했다. 호르무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협은 오만·아랍에미리트(UAE)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2~30%,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가 이란령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다. 중동산 ‘두바이유’의 수요가 ‘텍사스 유(WTI)’와 ‘브렌트유’로 이동하면서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해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는 런던 거래소에서 전일보다 16.2% 오른 배럴당 107.70달러까지 올랐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WTI는 19% 상승한 108.15달러에 거래돼 202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유가는

다음날 배럴당 90달러 전후까지 하락하며 조정에 돌입했지만, 올해 초와 비교해선 여전히 50% 가량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유가가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달러도 뚜렷한 강세다.

지난 9일 달러 가치의 지표가 되는 달러지수(DXY)는 장중 99.69까지 상승(100을 기준으로 클수록 달러 강세)했다. 증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5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빠르게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물가 상승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사태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으며,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확인했다. 유 부총재는 “현재 금리 및 환율이 중동 지역 리스크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추가 대응’ 준비를 주문했으며, 다음날인 10일에는 유류세 인하·가격 상한제 도입 등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출구전략’ 제시...중동사태 ‘새국면’

‘중동사태’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관측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될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장악 가능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중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최

근의 고유가·고환율 상황도 새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전쟁은 마무리 수순에 있고, 이란군은 해군도 없고 통신도 없으며, 공군도 없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란은 그러면 약삭빠른 행동도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석유의 흐름을 막는다면 미국은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강한 타격을 가할 것이며,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라고도 적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출구전략을 제시한 배경에는 정치 및 경제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며 “출구전략의 제시하는 제2의 러-우 전쟁과 같은 전쟁 장기화 리스크를 완화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이란발 불씨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닌 만큼 당분간 국제유가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작년 1.0% 성장 그친 경제... 올해 2% 반등 시나리오 ‘흔들’

건설·제조·수출 부진에 경기 힘 빠져 기존 2.0~2.1% 성장 전망에도 하방 압력

지난해 한국 경제가 연간 1.0% 성장에 그치고 4분기에는 다시 -0.2%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2% 안팎 반등 전망의 출발점 자체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화 환율과 시장금리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한국은행과 주요 기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에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성장하는 데 그쳤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4분기에 다시 전기 대비 0.2% 감소해 연말로 갈수록 성장 탄력이 약해진 모습이 확인됐다.



6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내용도 좋지 않았다. 4분기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기계·장비 부진으로 1.5% 줄었고, 건설업은 건물·토목이 동반 감소하며 4.5% 줄었다. 지출 측면에서도 민간소비는 0.3% 늘었지만 건설투자는 3.5%, 설비투자는 1.7%, 수출은 1.7% 각각 감소해 소비를 제외한 성장축이 전반적으로 흔들렸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건설업은 9.5%, 건설투자는 9.8%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자금 흐름도 경기의 체력을 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한국은행이 전달 발표한 산업별대출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은 8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직전분기 20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운전자금 증가액이 13조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급감해 기업들의 연말 자금 운용이 한층 보수적으로 돌아섰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 반등 전망이 이런 약한 기저 위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0%로 제시했고, 총재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회복을 반영해 기존 1.8%에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당시에 건설투자 회복 지연, 미국 관세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을 성장경로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IMF와 KDI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9%로, OECD는 2.1%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변수가 갑자기 커졌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중동발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약 70%, LNG의 약 2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물 경우 수입물가와 기업 비용을 끌어올리고, 이는 소비 회복과 수출 채산성, 통화정책 운신 폭에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면은 ‘작년 1.0% 성장의 낮은 출발점’ 위에서 ‘올해 2% 안팎 반등’을 기대하던 시나리오에 새 하방 변수가 추가된 것이다. 건설 부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도 4분기에 힘이 약해졌고, 여기에 유가·환율 충격까지 겹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이 2.0~2.1%에서 다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WTI 선물이 전주 말 12%대 급등한 데 이어 당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고, 유 부총재도 금리와 원화환율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전쟁 충격마다 증시는 돌아왔다”... 다만 빛투 변수는 여전

과거 전쟁 뒤 코스피 반등 반복 레버리지 확대로 변동성 확대

중동 군사 충돌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거 전쟁과 지정학적 충돌 국면에서 증시가 일정 기간 이후 반등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증시

역사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는 지난 9일 서킷브레이커를 제외하고 총 7차례다. 대부분 시장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에서 발생했다.

서킷브레이커는 ▲미국 닷컴버블 붕괴(2000년 4월17일) ▲닷컴버블 붕괴 및 대우차 매각 무산(2000년 9월18일) ▲9·11 테러(2001년 9월12일)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3월13일)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3월19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2024년 8월5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2026년 3월4일)에 발생했다. 이들 사례 이후 코스피는 30거래일 전후 평균 약 9.9% 반등하며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과 군사 충돌 사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대신증권이 과거 12차례의 전쟁과 군사 충돌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는 약 20거래일 후 평균 3.6% 상승하며 충격 이후 추세 복귀 흐름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2001년 9·11 테러 직후 코스피는 하루 만에 12% 넘게 급락했지만 이후 한 달여 만에 테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전쟁 발발 이후 단기 변동성을 거친 뒤 점차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서킷브레이커는 통계적으로 시장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 구간 역시 역사적으로 강한 지지

선으로 작용했던 밸류에이션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시장은 레버리지 투자 확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 전체 차원의 레버리지 장세가 전개되는 국면”이라며 “하루 급등 이후 다음 날 급락이 나타나는 등 당분간 큰 폭의 변동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

